

“통일의 숲, 남북평화의 소중한 씨앗”

김문수 경기도지사, 통일의 숲 조성사업 기공식

민간인출입통제선 지역인 파주 도라산역 인근에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의 숲이 조성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0월10일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역 앞 평화공원 내에서 통일의 숲 조성사업 기공식을 갖고, 발파와 기념식수로 평화와 통일의 의지를 다졌다.

통일의 숲은 총 사업비 12억원을 들여 내년 5월 완공될 예정이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모양의 화합동산(9천917㎡), 통일을 상징하는 한반도형태의 통일동산(9천917㎡),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모양의 평화동산(1만1천570㎡) 등 모두 3개 동산으로 꾸며진다.

또 각 동산에는 구상나무, 전나무, 소나무, 잣나무, 은행나무 등 20여종 3,000여 그루씩 총 1만 그루의 나무가 식재된다. 나무 1만 그

루는 모두 도민과 기업들의 100% 헌수로 마련된 것이다.

통일의 숲은 민선 4기를 맞아 도라산평화공원 조성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전 국민의 통일염원과 남북교류의 상징적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공식에는 김 조성을 주최하는 김덕영 경기도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를 비롯해 유화선 파주시장, 이성호 1사단장, 식재현수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이 땅이 그다지 크지 않아도 울창한 숲과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지역으로 변장하길 바란다”며 “고마운 기증자들의 뜻을 영원히 잘 이어 정성스럽게 가꿔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오늘 기공식은 남북평화의 씨앗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 지역은 전쟁의 아픔을 이기



파주시 도라산 평화공원 내 통일의 숲 조성 기공식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양태홍 경기도의회 의장, 유화선 파주시장, 김덕영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 이성호 1사단장 등이 참석해 지역초등학교생들과 기념발파를 하고 있다.

고 오랜 기간 간절한 소망을 품고 산 분들의 희망의 땅”이라며 “평화의 숲 조성으로 남과 북이 갈라진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경전철 공구별로 터파기 작업

4천750억원 투입 2011년 8월 개통예정

의정부경전철이 지난 7월26일 기공식을 갖고 70여일 지나 10월 15일 터파기 작업 등 공사 착공에 들어갔다.

1공구는 시청-발곡역 구간과 2공구는 시청-효자역 구간, 3공구는 효자역-차량기지 구간으로 15일 공사 착공에 들어간 구간은 1공구와 2공구이며, 3공구는 19일에 공사에 착수했다.

공사가 시작된 시청-의정부역 구간과 시청-흥선역 구간은 가운데 2차로를 막아 양복6차선에서 4차선으로 2차선이 줄어든다.

경전철 노선이 지나가는 시내 주요 교차로 도로는 순차적으로 통제하게 되어 교통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경전철은 4천750억원을 들여 2011년 8월 개통예정



의정부경전철이 지난 7월26일 기공식을 갖고 70여일 지나 10월15일 터파기 작업 등 공사 착공에 들어갔다.

로 장암지구-시청-의정부경찰서 -버스터미널-경기도제2청사-송산동을 연결하는 11.1km 구간에 15개소의 무인정류장이 설치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봉사활동에 앞장

의정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 개최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주최한 2007년 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에서 이문환 포천기초성심상담센터 소장이 박상욱 검사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고 있다.

의정부지방법검찰청(검사장 박상욱)은 10월 11일 의정부시 의정부2동 소재 예나눔재단에서 범죄예방위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의 활성화와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2007년 밝은 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 앞서 박상욱 검사장은 “합신적이고 모범적인 활동으로 표창을 받은 위원들과 모범학생들에게 축하의 인사와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지역사회와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범죄예방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봉사활동에 더욱 힘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한마음 대회에는 지역협의회 임원 및 운영위원 49명, 각 분과위원장 4명, 각 지구협의회장 및 지구위원대표 44명, 여성특별분과위원회 위원 18명, 신규 위촉위원 13명 등 범법위원 120명 등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는 초청강의, 신규범죄예방위원 위촉장 접수, 표창장 접수 및 수여, 장학증서 교부 및 장학금 전달, 범법위원지역협의회장 대회사, 검사장 격려사, 연찬회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효율적인 산업재해예방 방안 모색

한국산업안전공단 현장의 소리위원 간담회 실시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원장 유재삼)은 10월11일 지도원 강당에서 (주)청산김치 현진숙 상무 등 현장의 소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재해예방 사업의 주요고객 13명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원 강당에서 (주)청산김치 현진숙 상무 등 현장의 소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재해예방 사업의 주요고객 13명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 관내 주요 사업장을 구성하고 있는 업체 및 가구단지, 석재업, 건설업,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보다 효율적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방안 모색의 장으로 마련됐다.

산업재해예방이라는 목표를 사업장과 공단이 정보를 공유하여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2007년 산업재해예방 사업결과와 지난 5월에 실시한 제1차 견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산업재해감소를 위한 토론 및 견의 사항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산업안전공단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고객과의 접점을 높이고 실제로 현장에서 원하는 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11월1일 개최

경기북부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채용박람회 신흥대 체육관

경기북부병무청(청장 이은조)은 현역입영대상자(기술·기능자격증 소지자)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 보충역을 대상으로 병역지정업체 채용박람회를 오는 11월1일 오후2시에 신흥대 체육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

가산업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 하는 제도로서 그간 우리지역 중소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지난 2003년부터 매년 2회에 걸쳐 개최해 오고 있다.

현역입영대상자는 지정업체 해당 분야 기술·기능 자격증소지자에 한하여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편입이 가능하며, 공익근무요원 소집대

상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와는 달리 지정업체의 채용인원에 제한이 없으며, 자격증 없이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함에 따라 채용 박람회는 이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지정업체와 현역입영대상자 및 공익근무소집대상자에게 참가 신청서와 행사 안내문을 각각 발송”하여 행사를 적극 주관하고 있으며, “이번 채용 박람회가 구인을 원하는 병역지정업체와 구직을 희망하는 병역의무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선플달기운동 경기북부 출범식

12일 의정부 신흥대학에서

의정부시 신흥대학이 10월12일 오후7시 개교35주년 기념행사 중 하나로 ‘선플달기 운동 경기북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선플달기 운동은 인터넷 게시판에 칭찬·격려성 댓글을 달고 악플(악성 댓글)을 퇴치하는 운동이다. 정보통신부·정보통신 윤리위원회와 12개 인터넷 포털업체가 공동 주관했다.

출범식엔 공동 대표인 민병철

중앙대 교수, 방송인 김재동 씨, 연기자 안성기·유동근 씨, 고승덕 변호사 등과 신흥대 학생·교직원들이 참석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과 확산을 다짐한다. 출범식 후엔 코요테·홍경민·앤·린·체리필터·박기영 등 인기가수의 축하공연도 가졌다.

출범식과 별도로 11·12일 양일간 선플달기 운동 행사장을 방문한 1000명에게 선플달기 운동의 상징인 해바라기와 기념품이 지급되기도 했다. ☎031)870-3326

조선후기 실학자 서계 박세당 선생 기려

의정부시 장암동 제3회 서계문화제 개최



조선후기 실학자 서계 박세당 선생을 기리기 위한 제3회 서계 문화제가 10월14일 오전10시 의정부시 장암동 주민센터 앞에서 1천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조선후기 실학자 서계 박세당 선생을 기리기 위한 제3회 서계 문화제가 10월14일 오전10시 의정부시 장암동 주민센터 앞에서 1천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올해 세 번째를 맞이한 서계문화제는 연희풍물의 길놀이로 시작으로 ‘청명함으로’라는 주제로 모두들 북 공연과 마칭밴드 공연무대를 마련했다.

또한 신에 어른산이 유진호 의 남사당의 화려한 줄타기 묘기는 단연 문화제의 백미(白眉)로 해악 넘치고 아슬아슬한 남사당 줄타기(어틀)로 개막공연을 개최했다.

주민들은 뽕기, 솜사탕 만들기, 엿치기, 국궁, 투호연타기, 제기차기, 뽕튀기로 주먹밥을 만들기, 달

전통민속 문화제로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놀이로 거울놀이, 차전놀이, 김쌈놀이, 강강술래, 인간줄타기 등 가족과 함께 우리의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즐거움을 마음껏 누렸다.

함께 어울리는 어울림 마당이 끝나면 강강술래로 모두 흥(興)을 나눈 뒤 내년을 기약하며 대금독주 시나위 공연으로 흥겨웠던 서계문화제의 막을 내렸다.

유은희 장암동장은 “서계문화제는 주민 모두가 화합과 단결로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로 주민 스스로 함께 만들고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으며, 잊혀져 가는 우리지역의 전통문화를 발굴해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토뉴스



여성능력개발센터 개관 10주년 기념식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여성능력개발센터 개관10주년기념식 및 심포지움에 참석해 미래를 여는 이야기 오픈서에서 축하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도 바이오·제약산업 전략적 육성

(재)경기바이오센터, 채영복 이사장 취임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을 선임했다.

경기도 공공기관인 (재)경기바이오센터는 10월 17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임 이사장으로 채영복(蔡永福, 70·사진)을 선임했다.

그동안 (재)경기바이오센터의 이사장은 경기도지사(김문수)가 당연직으로 맡고 있었으나,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사장을 민간의 전문가에게 맡겨 운영하도록 이사회 운영 시스템을 개편한 것이다.

신임 채영복 이사장은 서울대 화학과와 독일 뮌헨 루트비히 막시밀리안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통령 과학기술자문회 자문위원, 대한화학회 회장, 한국기술진흥원 부회장, 과학기술부 장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및 한국과스퍼트연구소 이사장에 재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7일 (재)경기바

이오센터 대표이사로 선임된바 있다.

채영복 이사장은 “최고의 연구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첨단기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내 바이오·제약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재)경기바이오센터는 채영복 이사장의 취임으로 바이오·제약기술의 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경영합리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이미숙의 전통춤 이야기 19

서산박첨지놀이(瑞山박첨지놀이)

양반사회 모순 풍자하면서 서민층에서 즐겨 놀았던 민속극

서산박첨지놀이(瑞山박첨지놀이)는 2000년1월11일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 춤이다.

박첨지놀이는 고려시대부터 양반사회의 모순을 풍자하면서 서민층에서 즐겨 놀았던 민속극으로 꼭두각시놀음, 흥동지놀음, 꼭두박치기놀음 등으로 불리우며 남사당패에 의해 전해 왔다.

인형을 매체로 한 사회풍자극인 박첨지놀이의 ‘박’은 인형을 바가지로 만들었다는데서 비롯되었고 ‘첨지’는 벼슬 이름으로 양반을 해학적으로 풍자하여 불여진 이름이다.

현재는 고(故) 주연산씨를 거쳐 서산 음암 마을주민 20여 명으로 구성된 보존위원회에서 명절날 마을 놀이로 행하고 있다.

이 놀이는 박첨지마당 네거리와 평안감사마당 세거리의 2마당 7거리로 구성되는 마당극으로 막

뒤에서 여러 사람이 인형을 움직이며 관객과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박첨지놀이는 주인공 박첨지를 통해 가부장적이고 폐쇄적인 양반 사회의 모순을 해학과 풍자로 승화시킨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마을단위의 민속인형극이며, 가면·탈·풍물도 예술적 가치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산 박첨지놀이’는 민속인형극으로 유래를 문헌에서 찾을 수 없고 이 놀이를 전승하는 데 크게 공헌한 주연산(1903~1993)翁의 증언에 따르면 고려시대부터 전하는 놀이라고 한다.

마음의 놀이꾼에 의하여 전승되고 있는 박첨지 놀이는 1920년대 강원도로부터 이 고장으로 이사는 유영준이 합세하여 놀게되면서 오늘 의 짜임새로 정착되었다.

남사당의 꼭두각시놀음과 유사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대사나



음악에서 서산의 향토성이 짙고, 우리나라 마을단위 민속극으로는 유일하여 보존회의 열의로 원형에 가깝게 전승유지 되고 있으며 작은 공터나 밭뜬 등 장소에 제약 없이 시연되고 있다.

이미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된 남사당 놀이의 꼭두각시놀음이 유랑 예인집단의 민속인형극이라면 박첨지 놀이는 마을의 놀이꾼에 의한 한층 소박한 놀이이다.



문의: 의정부시무용단 031-877-8891
이미숙 단장